

“포스트 코로나 대비 마이스 산업 새로운 길 모색”

취임 2주년 맞은 정종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코로나로 매출 65% 급감... 첫 차입 경영·직원 휴직 등 긴축 경영 사이버 상담 등 언택트 행사 시스템 'DJ 스튜디오' 이달중 구축

정종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8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언택트 행사 시스템 구축과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관광산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마이스 산업 변화를 위해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시장 가동률을 유지하는 등 재무적으로도 ‘제로’ 수준의 부채비율을 유지하며 양호한 상태였다”면서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로 공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운영자금을 일부 차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지난달 말까지 450여건의 행사가 취소되고, 주간 전시회도 15건 중 13건이 취소되는 등 올해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면서 “그동안 매출 손실만 12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경영목표 200억원에 비하면 65%에 해당하는 매출 손실을 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코로나19 경영 상황 때문에 센터 전 직

원의 20~50%에 이르는 인원은 매월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긴축 재정을 운영 중이다.

정 사장은 “취임 직후 경영혁신계획 수립과 새로운 경영비전을 선포하고, 차별화, 브랜드화, 국제화, 융복합화, 질적성장, 지역발전, 경영혁신 등 7가지 키워드를 경영전반에 반영해 오면서 올해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영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19는 대표적인 오프라인 대면 접촉 비즈니스인 마이스산업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센터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 사업실, 전시사업단을 신설하고, 언택트 시스템 구축과 신규 사업개발, 미래먹거리 관련 유망전시회 신규 개발 등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달 중 구축이 완료되는 ‘KDJ 스튜디오’는 사이버 상담장, 화상회의시스템, LED 비디오월, 온라인 콘텐츠 제작시설 등을 갖추고 변화된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KDJ 스튜디오’가 앞으로 디지털커



머스 판촉전,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 세미나, 기업 화상상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교육장, 공개 오디션 및 채용설명회 등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사장은 또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고객 마케팅은 비대면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 교육, 문화콘텐츠, 4차산업, 에너지, 민주·인권·평화 등 5대 특화 분야 MICE 행사를 전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개최할 약 15건의 주간 전시회도 온라인 전시, 사이버 상담회 등 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하이브리드형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취임 이후 지난 2년간의 주요 경영 성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등급 획득 ▲지방 공기업 유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매 우수기관) ▲KDJ 민주인권평화포럼 창설 등의 차별화 브랜딩 ▲5대 분야(민주인권평화·교육·문화콘텐츠·인공지능·에너지) 특화마케팅 성공적 추진 등을 꼽았다.

정 사장은 이밖에 “앱개발, 셔틀서비스 등 방문객 편의를 높이는 프로그램 추진과 조선탄·호남대·동신대 등 지역 대학과 협업한 마이스 실무 강좌,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호남권 마이스 산업 선도기관으로서 생태계 활성화와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사업은 이달 중 산업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건립 계획 심의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후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토와 중앙투자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2022년 착공하여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제2전시장 건립은 지역의 인프라 경쟁력 확보와 미래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면서 “제2전시장 건립 대비 효과적 운영방안 도출과 사전마케팅 추진을 위한 TF가 운영중이며, 전시장 확장에 따라 수용이 가능한 대형전시회 및 국제행사 유치대상 발굴, 지역유망산업과 관련한 신규전시회 개발 등을 추진중이다”고 덧붙였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에너지 절감하고 경품 받자 내달 4일까지 신규 참여자 이벤트

광주시는 “전기·수도·가스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관내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는 35만세대를 넘어 전국 최고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시는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에 나서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최근 2년과 비교해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일정량 이상 줄일 경우 포인트로 환산해 지급하는 제도로, 반기 최대 2만5000포인트, 연 최대 5만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전기·수도·가스 고객센터를 확인한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자치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가입 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개인정보를 바꿔야 인센티브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일부터 12월 4일까지 탄소포인트제 개인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절전멀티탭, 비말차단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품 지급 규모는 사·도 신규 참여자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다중이용업소 화재관리 강화 광주시 안전보강 사업비 지원

광주시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화재관리 강화는 지난 5월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기존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일부 다중이용업소로, 20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시행해야 한다.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병원, 격리병원)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이며, 다중이용업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복합상점, 산후조리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고시원), 교육연구시설(학원), 숙박시설(고시원) 등이다.

광주시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1대 1대 1로 동당 최대 2600만원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한다. 사업내용은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방화문 설치, 향양식 피난구 설치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렴 의지 담아... 종이비행기 날리기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공사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공사 임직원들은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겠다는 내용의 청렴 소망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광주시 빛고을장학생 215명에 2억1600만원 장학금

광주시는 2020년도 빛고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21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선발된 장학생은 광주에 소재한 학교 재학생 중 교육감과 각 대학 총장 등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95명, 대학생 110명이며 장학금 2억 1600만원을 지급한다. 선발 대상별로는 학업장려 143명, 예·체능·특기 22명, 광주형일자리·고용우수 기업 직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 50명이다.

빛고을장학생금은 1981년 설립된 무등장학회를 2002년 확대·개편한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시 출연금과 지역 기업, 독지가들의 기탁 성금으로 올해까지 총 4796명에게 34억여 원을 지급했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우수한 인재를 지속해서 발굴, 지원하기 위해 장학기금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열정과 희망을 잃지 않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홀로 사는 이웃 안부 확인 광주시 모바일 돌봄서비스

광주시는 8일 “유·무선 전화의 수·발신 이력을 모니터링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 1인 가구에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건강취약계층 7000여명이다.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는 수·발신 이력이 3일 동안 확인되지 않고 자동 안부 콜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 자동 알림 통보가 돼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복지통장, 인근 복지관 직원 등이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올 한 해 동안 8000여건의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곧바로 안부 확인을 했다.

실제 3일 이상 전화 수·발신 기록이 없고, 2차례 안부 콜에도 반응이 없는 대상자가 자동 알림 통보돼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가정 방문한 결과, 3일 이상 식사와 거동을 하지 못한 채 발견돼 즉시 병원 후 회복하는 사례도 있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대상자를 확대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